“전통문화 인식 새롭게 하게 됐다”

정병국 장관 ‘변화된 입장’ 피력

불교계와 정부 여당과의 관계가 정상화된 이후 정부 인사로는 처음으로 종교분야 주무부서 장관인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예방하고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한 계기가 됐다”고 변화된 입장을 밝혔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1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예방을 받고 환담했다. 정병국 장관은 “정부 여당의 정성이 부족한 탓에 불교계에 누를 끼쳐 주무장관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정부 여당이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게 됐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게 됐다고 하니 지난 6개월간의 노력이 헛되지 않은 것 같아 다행스럽다”고 평가했다. 총무원장 스님은 이어 “템플스테이 등 불교문화가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한다고 정부 스스로 평가하면서도 타 종교나 집단이 특정종교에 대한 지원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침묵 내지는 동조해서는 안 될 일”이라며 “특정종교에 대한 지원이 아닌 우리의 소중한 전통문화를 지키고 체험하는 일임을 정부가 앞장서 설득하고 보존 및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주무장관으로서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 여당 정성 부족 탓 불교계에 누 끼쳐 죄송

연등회 무형문화재 등록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정 장관은 템플스테이가 특정 종교를 체험하는 종교적 차원이 아닌 국가적 관광사업 차원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템플스테이 관련 주무부서를 문체부 내 ‘종무실’에서 ‘관광국’으로 이관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각 사찰마다 템플스테이를 특화하고, 많은 내외국민들이 언제든지 찾아와 참선을 체험함으로써 정신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중선방’을 운영해 주길 요청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불교문화사업단을 통해 각 사찰마다 특화된 템플스테이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시했다”면서 “템플스테이를 ‘상업’적인 측면에서의 상품으로만 접근하지 말고 우리의 소중한 전통문화를 체험하는 관광프로그램으로 인식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 장관은 이어 연등회(연등축제)의 하이라이트인 연등행렬을 지난 5월 체험했던 경험을 이야기하며 연등회를 무형문화재로 등록하고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도 추진하겠다고 피력했다. 또한 일반법이 불교를 비롯한 각 종교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오해와 문제가 생긴 측면이 있다면서 종교계의 특수성을 반영한 법령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오늘 나눈 이야기가 덕담으로 끝나선 절대 안된다”면서 “종무실을 중심으로 문광부에서 적극적으로 실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강봉석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장은 “실현될 수 있도록 실무선에서 집요하게 챙기겠다”고 답했다.

박인탁 기자 parkintak@ibulgyo.com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불교계와 정부 여당과의 관계가 정상화된 이후 정부 인사로는 처음으로 지난 1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으로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예방해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있다. 김형주 기자

“민주노동당, 복지 사각지대 항상 신경 써 줘 감사하다”

총무원장 자승스님, 이정희 대표와 환담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1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사진〉의 예방을 받고 환담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예방해주셔서 감사하다”면서 “민주노동당이 정치와 복지의 사각지대를 항상 신경써줘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덕담했다. 힘들 때마다 108배를 한다고 자신을 소개한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는 “불교의 가르침이 나누고 어려운 사람을 보살피는 것처럼 민주노동당이 하고자하는 일 또한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으로써 이제는 이를 실현할 때가 왔다”면서 “총무원장 스님을 비롯한 불교계가 많은 가르침을 내려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함께 배석한 기획실장 정만스님은 “불교 관련 국가 규제법령이 17개에 달한다”면서 “개정 작업을 진행 중에 있는 만큼 불교계의 오랜 숙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민노당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정희 대표는 “전통문화 보존이 과거와 현재, 미래를 아우르며 있는 것인 만큼 민노당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답했다. 함께 배석한 권영길 민주노동당 원내대표가 “17대 국회에서는 민노당 의원을 초청해 사찰음식을 함께 공양한 적이 있다”며 점심공양을 제안하자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흔쾌히 수락하며 일정을 잡도록 지시했다.

박인탁 기자

외국인행자교육원 입교 ‘의무’ 종령 개정 공포

해외특별교구법 시행령 제정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6일과 13일 종무회의를 잇따라 개최하고 ‘행자교육 운영에 관한 령’과 ‘해외특별교구법 시행령’을 심의, 공포했다. 개정된 ‘행자교육 운영에 관한 령’에 따르면 외국인이 행자로 등록할 경우에는 한국 불교와 문화, 역사에 대한 교육과 대중생활, 한국어 습득 등을 위해 ‘외국인행자교육원’에 입교해야만 한다. 또한 교구본사별로 시행하던 ‘수계예비교육’ 관련 규정을 삭제해 관련 제도를 없앴다.

제정된 ‘해외특별교구법 시행령’은 해외특별교구의 설립과 관할범위, 해외사찰 등록, 해외사찰 등록승인, 등록사찰 권리와 의무, 해외특별교구장 선거, 재적승의 권리와 의무, 해외특별교구의 보고의무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특히 해외특별교구장 선출은 해당국가 또는 지역의 총의를 모을 수 있는 고유의 방식으로 하되 후보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우편투표’와 ‘온라인투표’ 등 선거를 통해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인탁 기자 parkintak@ibulgyo.com

문화재 보유 사찰 종무·관리원 연수

조계종 총무원 재무부(부장 도문스님)와 문화부(부장 진명스님)는 오는 23일과 24일 이틀 동안 공주 전통불교문화원에서 ‘문화재보유사찰 종무원 및 문화재관리원 종단연수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연수는 문화재보유사찰 주지 스님과 문화재구역입장료 업무당당 종무원, 매표 직원, 검표 직원, 성보관리원(성보박물관 학예사 제외), 문화재해설사(포교사, 자원봉사자) 등으로 대상으로 하며, 문화재보유사찰에서는 1명 이상 참석해야만 한다. 연수는 입재식을 시작으로 총무원 문화부장 진명스님의 ‘문화재관리원의 역할’ 강의, 불교중앙박물관장 흥선스님의 ‘성보문화재 바로알기’ 강의 등으로 진행된다.

박인탁 기자

본·말사 주지 인사

(6월13일 종무회의 결과)

도성스님
홍천 지장선원

진용스님
서천 봉서사

지자스님
청도 대운암

능광스님
영천 신령포교당

일우스님
영덕 영혜사

일연스님
완주 안심사

화평스님
익산 심곡사

보경스님
서울 법련사

원경스님
제주 월라사

인터넷 접수 원칙·우편도 가능

‘교리경시대회’ 〈1면에 이어〉

접수방법은 7월4일부터 16일까지 은정불교문화진흥원 홈페이지(www.eunjung.or.kr)에서 인터넷 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우편접수도 가능하다. 시상은 개인부문 △대상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은 최대 300만원, 조계종 총무원장상은 50만원의 장학금 △최우수상인 동국대 총장상은 최대 100만원, 조계종 포교원장상은 30만원 △우수상인 동국대 정각원장상은 최대 80만원, 군종특별교구장상에는 20만원 △장려상인 동국대 불교대학장상은 최대 50만원, 군종특별교구장상은 10만원, △입상인 은정불교문화이사장상과 군종특별교구장상에는 기념품이 전달된다.

단체부문 △대상인 총무원장상은 100만원, 최우수상인 동국대 이사장상과 조계종 포교원장상은 각 80만원, △우수상인 사단법인 동련이사장상과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장상,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상은 각각 장학금 50만원이 전달된다.

또 참가자 가운데 신행활동에 모범이 되어 온 학생 5명을 선발해 △특별상인 은정불교문화진흥원 이사장상과 장학금 100만원을 수여한다. 시상식은 10월2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 2층 공연장에서 열릴 예정이다.

‘찬송가 연주’ 〈1면에 이어〉

각원 법사에 따르면 이와 같은 세부적인 내용을 지침으로 만들고 책으로도 펴내기로 결의했다고 전했다. 각원 법사는 지침과 교범을 만들어 내는데 1~2달 정도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더불어 본지가 지난 8일과 13일 두 차례에 걸쳐 국방부에 발송한 질의서에 대해서는 “행사에서 연주한 곡의 선정 배경에 대해 국방부의 답변이 미진했다는 것을 인정한다”며 “답변을 마무리해 담당 부서에서 빠른 시일 내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본지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현충일 추념식 행사에서 사용한 총 5곡을 선정한 배경과 찬송가를 연주한 까닭,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곡의 사용여부 등을 골자로 질의서를 보냈지만, 지난 10일 돌아온 답신에는 명백한 답변이 없었다.

이에 본지는 13일 다시 질의서를 작성해 국방부에 발송했으며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2011년 불교사회복지 정책포럼

“사회통합의 가능성으로 본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오늘날 우리 사회는 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무상급식으로 촉발된 ‘보편적 복지, 선별적 복지’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며 복지정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불교의 사회통합(화쟁)적 차원에서 우리 사회 갈등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대화와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석바랍니다.

▮주 제 : “사회통합의 가능성으로 본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 발제와 토론(좌장: 최경구/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발제〉 1. “지속가능한 복지모형 구축” 김용하(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2. “왜 보편주의 복지국가인가?” 이상이(제주대 교수,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토론〉 석재은(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명묵(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 복지평론가)
유승무(중앙승가대학교 포교사회학과 교수)
• 전체토론(질의 응답)

▮일 시 : 2011년 7월 5일(화) 오후3~6시
▮장 소 :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
▮참석대상 : 사회복지 종사자 및 관심있는 누구나
▮공동주최 :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불교사회연구소
▮문 의 :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02.723.5101~2)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